



EVE AUDIO STUDIO MONITOR

SC205 REVIEW

PROS

저음 모니터링
음 분리도
전원스위치의 편리함
클리핑 방지
소비전력

CONS

고출력시 디스토션감
귀의 피로도
DSP 필터 성능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사운드의 펀치감을 중시하는 분
저역 모니터링이 까다로운 홈스튜디오 작업자
발라드보다는 리드미컬한 음악을 하시는 분
스피커 뒤쪽 전원스위치가 불편하신 분
화려한 디자인에 목매지 않는 분

REVIEW 를 시작하며...

그동안 필드테스트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당첨이 되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기회를 주신 사운드앤 뮤직에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고 곡쓰고 가사쓰는 작곡가 겸 작사가입니다. 제 리뷰는 홈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작곡가 입장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스피커 자체의 사운드는 어떠한가?'와 과연 '작업하는데에 무리가 없는가?'에 가장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RME Babyface와 MAXIO032로 테스트했습니다.

스피커 가격대가 아무래도 초보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관심가질만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어느정도 전문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결론만 원하는 분들은 총평 부분만 읽으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EVE audio ?

처음에는 'EV(Electro Voice)'사의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회사더군요. ADAM 스피커로 유명한 Adam-Audio의 공동설립자이자 CEO였던 Roland Stenz라는 사람이 EVE-Audio를 설립했다는 점이 재미있네요. 아담과 이브라.. 역시 남녀관계는 알다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두 분 다 남자)

ADAM 스피커와 EVE 스피커의 공통점은 리본트위터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리본트위터에는 AMT라는 기술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ADAM과 EVE는 같은 방식의 리본트위터를 사용하지만 둘의 사운드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 AMT(Air Motion Transformer)방식의 트위터란?

“소리를 쥐어짜내는 방식의 이 트위터는 소리를 밀어내는 방식인 돔 트위터 보다 4배 정도 빨리 소리를 공기중으로 전달함으로써 고역의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해 지는 높은 해상도의 사운드를 들려준다.“

출처: [월간PA]

SC205에 대해...

EVE SC205에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Music Tech라는 잡지에서였습니다. 리뷰를 보니 굉장히 평이 좋은데다가 ADAM시리즈의 평점보다 더 좋은 평점을 받았길래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잡지의 평점을 너무 맹신하면 안되지만 이 전의 ADAM Review에서 제가 ADAM의 단점이라 생각한 것을 상당히 정확히 짚어주고 있었기에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VE는 아담과 같은 방식의 리본트위터를 사용하지만 트위터 만큼이나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SilverCone 우퍼입니다. 또한 베이스 포트 디자인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저음쪽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SC205의 소리를 들었을 때 리본트위터의 청명한 고음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분명하고 힘있는 저음쪽이었습니다.



주요스펙

타입	2-way Active Systems
주파수범위	53Hz - 21kHz
크기(WxHxD) [mm]	175x275x233
무게	5Kg
트위터	AMT RS1
미드우퍼	SilverCone 5"
크로스오버Hz	3000Hz
아웃풋 파워	우퍼(50W) 트위터(50W)
소비전력	최대출력시 70VA / 대기시 1W이하

그 밖의 기능

DSP 필터기능

High-Shelf, Low-Shelf, Desk Notch

보호기능

Protection Limiter

4 Type LED mode

Bright Ring, Bright Point, Dim Ring, Dim Poin

The 4 Questions

“ 모니터 스피커로서의 효용성을 체크해 보기 위해 다음 4가지의 항목으로 나눠 각 항목별로 평점을 내봤습니다. 약간은 꺾치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모니터 스피커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위주로 체크했습니다. ”

1. 특정 음역대가 강조되거나 약화되지 않는가?

★★★★☆

주파수에 따라 강조되거나 약화되는 부분없이 전체적으로 평탄한 사운드를 들려주는지 체크해 봤습니다.

또 홈스튜디오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저역대 모니터링이 잘 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Test1. Sine Wave를 이용한 테스트

큐베이스 Test Generator를 열고 Automation 기능을 이용해서 배음이 없는 sine wave를 0~20kHz까지 서서히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실험은 어디까지든 제 작업실에서 제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가 핵심이고 다른 룸에서 재생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결과 귀에 의존하기 때문에 애초에 객관성이 낮은 실험이지만 제 작업실에서 들어 본 EVE205의 사운드는 이 룸의 고질적인 부밍영역인 142~170Hz를 제외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150Hz~250Hz는 스피커 위치나 바닥에 따른 변화가 다른 스피커보다 조금 민감한 듯 했습니다.

Test2. Kick의 저역 모니터링

댄스 Kick 하나를 골라 Q값을 동일하게 주고 Gain값을 줄입니다. Threshold는 40Hz~70Hz까지 10Hz단위로 변경했습니다. 총13개 Kick으로 블라인드테스트를 했습니다.

Kick 1	No Processing	Kick 2	-3dB (40Hz~70Hz)
Kick 3	-6dB (40Hz~70Hz)	Kick 4	-9dB (40Hz~70Hz)

결과 50Hz부터는 분명히 좋은 모니터링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룸튜닝이 완벽하지 않은 홈스튜디오에서 이정도 성능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큰 우퍼를 사용하기 힘든 공간에서는 분명한 강점을 지닌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1. 특정 음역대가 강조되거나 약화되지 않는가?
2. 다이내믹레인지와 작은소리가 잘 표현되는가?
3. 소리가 변화하는 타이밍을 빠르게 반영하는가?
4. 음이나 악기 혹은 각 소리의 구분이 잘 되는가?

2. 다이내믹레인지와 작은소리가 잘 표현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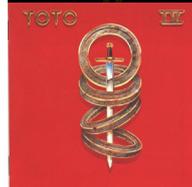
★★★★☆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은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또 스피커 별로 다이내믹 레인지 표현에 있어서는 큰 소리보다 작은 소리쪽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평소 즐겨 들었거나 카피해봤던 음악, 제가 만든 음악 등을 가지고 작은 소리가 얼마나 잘 표현되는지를 체크했습니다.



Hans Zimmer Time (영화 인셉션 OST)

다이내믹레인지가 넓은 곡인데 후반부의 감동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저음 신스와 퍼커션 딜레이도 아주 잘 표현됩니다.



TOTO 4집 Rossana

초반 드럼 고스트 노트가 비교적 잘 들립니다. 하이햇과 뮤트기타, 탬버린의 생동감이 잘 느껴집니다.



패닉 4집 추방

Skit부분 정재일과 대화 나누는 부분에서 이적 목소리에 걸린 리버브까지 정확하게 들립니다. 피아노 페달노이즈도 선명합니다.



사이니 3집 Dream Girl

무빙필터가 굉장히 세밀히 표현됩니다. 신스 베이스와 슬라이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기타스트록과 백보컬도 잘 구분됩니다.

결과 중간볼륨에서도 작은 소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믹싱이나 녹음시 작은 노이즈나 고스트등을 캐치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볼륨을 많이 올렸을 때의 디스토션감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큰 스튜디오 오는 좀 더 출력이 큰 제품이 맞을 것 같습니다.

3. 소리가 변화하는 타이밍을 빠르게 반영하는가?



SC 205를 테스트 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타이밍을 빠르게 반영하는 스피커들은 펀치감이 좋고 컴프레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믹싱이나 소스를 만질 때 유리합니다. 또한 저가 스피커와 고가 스피커 사이에서 주파수응답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Test1. 드럼룸의 컴프레서 어택과 릴리즈 테스트

어쿠스틱 드럼과 전자드럼을 사용하는 두 가지 드럼룸을 만들어서 컴프레서 어택과 릴리즈값을 세밀하게 조절해 봤습니다.

컴프레서는 Cubase 자체 컴프레서(RMS 100)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Fabfilter Pro-C를 가지고 테스트 했습니다.

결과 이 전의 실험은 비슷한 다른 스피커와 별 차이가 없거나 큰 문제가 없는 정도 였는데 펀치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을 보였습니다. 펀치감이 뛰어난 마이클 잭슨 Heartbreaker나 Maroon5의 Make Me Wonder 같은 곡을 들어보면 확실히 펀치감에 있어서 웬만한 스피커를 압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음과 중음쪽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 곡은 왜 드럼이 튀어나오지 않는가 고민하면서 드럼 볼륨만 올렸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컴프레서 어택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최적의 값을 보다 유리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펀치감이 중요한 파트가 킥과 스네어 베이스인데 다른 5인치 스피커에 비해 훨씬 저음쪽 모니터링이 잘 되는 데다가 반응속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씨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똑같은 음원도 펀치감이 좋게 들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SC205로 작업했는데 다른 스피커로 들었을 때 펀치감이 죽어서 들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확한 모니터링으로 최상의 펀치감을 내려는 분에게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악 들을 때 신나게 듣는 맛이 나는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4. 음이나 악기 혹은 각 소리의 구분이 잘 되는가?



앞에서 다룬 것과 어느정도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만 모니터 스피커에서 중요한 부분이기에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음이 잘 구분되면 카피할 때나 화음악기 보이싱을 체크하기 유리합니다. 또한 보다 입체감있는 믹싱을 위해 소리의 깊이 얼마나 잘 표현되는지, 스테레오 이미지감이 잘 표현되는지를 체크했습니다.

Test1. 믹싱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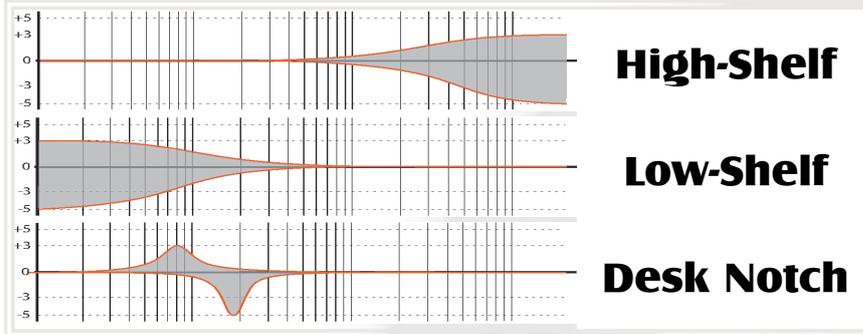
제가 만든 곡을 가지고 믹싱을 해 보면서 여러가지를 테스트 했습니다. 트랙별 소리가 구분이 잘 되는지와 위상이 틀어진 부분이 잘 모니터링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또 리버브와 딜레이 및 컴프레서를 통해 음의 깊이가 잘 표현되는지, 스테레오이미지가 잘 구분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크로스오버서 이질감여부도 체크했습니다.

결과 예전에 밸런스만 잡아놓고 믹싱을 끝내지 않은 곡을 이번에 다시 믹싱해 봤습니다. 잡아놓은 밸런스는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고 트랙별 구분은 훨씬 잘 됐습니다. AMT 방식을 사용하는 리본 트위터의 가장 큰 장점이 음분리도라고 생각합니다. ADAM과 비교했을 때 중음역대는 비슷한 것 같고 고음역대는 ADAM이 더 멋진 소리를 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저음역의 음분리도는 EVE쪽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808킥소리의 저음 부분이 굉장히 잘 들리고 신스베이스 소리도 굉장히 명료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와 우퍼가 교차되는 크로스오버 영역이 3000Hz라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이질감이 생기지는 않는지 여러부분을 쪼개가며 테스트를 했습니다. 3000Hz를 기준으로 음색이 티가나게 달라진다거나 볼륨이 커진다거나 하는 점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었습니다. 확실히 트위터만 좋다고 되는게 아니고 우퍼도 받쳐줘야 전체적으로 좋은 밸런스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스테레오이미지는 크게 뛰어나다거나 문제가 되는 점을 못 느꼈습니다만 사운드 깊이에 있어서는 좋은 모니터링 성능을 보였습니다. 소리의 깊이 표현이 뛰어나다보니 소리가 입체적으로 들리는데에 큰 역할을 하고 또 3D믹싱에 있어서 유리한 모니터링 성능을 보여줍니다.

DSP 기능에 대해...

EVE SC205에는 DSP기능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 하자면 EQ (filter)가 하나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igh-shelf, Low-shelf, Desk notch 세 가지 형태의 필터를 사용가능합니다. (동시 사용도 가능)



룸 어쿠스틱을 보완하는 목적이므로 가끔씩 적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DSP 성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제품을 구입하면 약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셋 중에 홈스튜디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쓸만한 것이 Desk notch필터입니다. Desk notch필터를 사용해서 소리를 깎을 때의 threshold는 180Hz인데 제 룸의 베이스 부밍이 일어나는 주파수(140~200Hz 부근)와 비슷합니다. threshold값과 Q값을 조절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적용해보니 부밍이 살짝 나아지긴 했습니다. Desk notch필터에서 소리를 부스트할 수도 있는데 80Hz가 부스트 되어서 더 좋은 편치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SC205자체가 워낙 편치감이 좋은 스피커다보니 굳이 안건드려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ETC...

1. 리본트위터가 약하다보니 보호망이 들어있습니다.
2. 클리핑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스피커를 켜고 끌 때 안전합니다.
3. 뒤에 있는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고 볼륨 버튼으로 Stand by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 1W이하)
4. 한글 매뉴얼이 있습니다.
5. 스피커 때문인지 작업량 때문인지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했으나 귀가 좀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 평... ★★★★★★☆☆

EVE SC205의 첫인상은 단연 리본트위터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사운드는 여러분도 예상하시는 그것 (화려하고 부드럽게 뻗어나가는 한줄기 아름다운 고음역)인데 EVE SC205의 소리는 꽤나 달랐습니다. 고음역은 화려하지 않고 무난하지만 대신 밸런스가 잘 잡힌 느낌이었고 오히려 저음역에 상당한 장점이 있는 스피커였습니다. 홈스튜디오에서 사용했던 스피커 중에서는 저음역 모니터링이 가장 잘 됐습니다. 특히 베이스기타의 음역을 벗어나는 신스페이스나 808킥처럼 저음이 두드러진 킥을 고를 때에도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저음쪽이 부스트되어 있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말 그대로 모니터링이 잘 된다는 느낌입니다.

EVE SC205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편치감이 상당히 좋다는 것인데 그렇다보니 드럼 작업 할 맛이 납니다. 컴프레서 파라미터 값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루브가 있고 리듬악기가 두드러진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음역 배음 컨트롤이 중요한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는 좀 감동없이 밋밋한 스피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고가를 제외하면 2way쪽은 어느 한쪽 성향이 강한 특색을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EVE는 확실히 저음쪽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스테레오이미지감은 특별히 개성이라 할 만한 부분을 못 느꼈고 대신 사운드의 깊이 표현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었습니다.

SC205제품의 경우는 출력을 따져봤을 때 전문스튜디오보다는 홈스튜디오에 적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리드미컬한 음악을 하시는 분이 홈스튜디오에서 사용하기에는 확실히 장점이 많은 스피커라고 생각됩니다.

총평을 한줄로 비유해서 알기쉽게 정리하자면...

“아영이와 보영 자매는 같은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지만 얼굴은 아영이가 더 예쁘고 다리는 보영이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아영 : ADAM | 보영: EVE
같은 병원 : AMT방식 트위터
얼굴 : 고음역 | 다리: 저음역